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 MIPTV 2018 참관 및 IDFA·EC 방문 -

-
- ◆ 기 간 : 2018. 4. 8(일) ~ 4. 13(금), 4박 6일
 - ◆ 방문국가 : 프랑스(칸느),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벨기에(브뤼셀)
-

2018. 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I. 출장 개요	3
II. 세부 활동	4
1. MIPTV 참관	4
2. Reed MIDEM 이사 간담회	13
3. 암스테르담 IDFA 방문	17
4. EU 집행위 사법총국 방문	21
5. EU 집행위 방문	24
III. 시사점	29
1. MIPTV는 왜 TV드라마에 주목하는가	29
2. 출장결과에 따른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방안	31
3. EU GDPR 적정성 평가 추진 관련	33
IV. 첨부자료	40
1. 출장 동정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	40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2018 MIPTV(국제 방송 콘텐츠 마켓) 참관 및 네덜란드, 벨기에와의 방송통신 협력 강화

2. 출장 국가 : 프랑스(칸느),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벨기에(브뤼셀)

3. 출장 기간 : '18년 4월 8일(일) ~ 4월 13일(금), 4박 6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허 욱
2	위원실	수행비서(행정사무관)	한 성 만
3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행정사무관)	왕 경 희
4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행정주사)	박 규 태

※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사무처장 외 3인 프랑스 일정 동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김정희 센터장 동행

5. 주요 활동

- (MIPTV 참관) 국제 방송 콘텐츠 분야의 최신동향 파악 및 국내의 참가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 (콘텐츠 해외진출 협력) 국제다큐 영화제 주관사 방문을 통해 독립 다큐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 등 협력 방안 논의
- (EU 정책협력 강화)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II. 세부 활동

MIPTV 2018 참관

1 국제콘텐츠마켓(MIPTV) 개요

- **전시회 기간** : 2018. 4. 9 ~ 4. 12
- **장 소** : Palais des Festivals , 프랑스 칸느
- **주 최** : Reed MIDEM (프랑스)
- **행사 내용** : 세계적인 콘텐츠 전문 마케터이자 대표적인 국제 영상물 견본시로, 전 세계 약 1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6일간 8억 유로 이상의 사업 관련 전시 및 미팅 진행
- **참가 대상** : 영상물 제작 배급사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배급사
- **행사 규모** : € 8 Billion 계약 규모
 - ※ 100여 개국, 3,151개의 참가회사, 1,373개 회사 전시, 11,000여명 참가, 3,736명 바이어 참가, 전체 전시 면적 20,144㎡(2017년 기준)
- **기타 주요행사**
 - Cannes Series : 칸느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4.4-11)
 - MIP Format : 포맷 전문 피칭 및 컨퍼런스(4.5-6)
 - MIP Doc :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전문 스크리닝 및 컨퍼런스(4.5-6)

2 주요 참관내용

□ 일시 /장소 : '18. 4. 9.(월) 09:00~19:00, Palais des Festivals

□ 참관 개요

○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글로벌 동향 파악 및 국내외 관계자 면담

시 간	일 정	비 고	
4.9.(월)	10:00-11:50	한국 공동관, EBS, SBS, MBC CJ E&M, KBS, JTBC, 채널A	
	12:00-14:00	한국 참가 방송사 간담회	오찬
	14:00-17:00	ITV STUDIO(영국 제작사), VGTRK(러시아 국영방송), Global Agency(터키 배급사), Endemol Shine Group(영국 포맷회사), KANAL D(터키 방송사), BBC Worldwide, 중국관 등	
4.10(화)	09:30-10:30	Reed MIDEM TV부분 이사 간담회	

□ 한국 방송사 부스 주요 특징

○ (한국관) 2005년 (구)방송위가 주빈국을 유치하여 한국의날 행사를 진행한 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관' 별도 운영중

-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면적을 사용하여 독립사제작사·배급사·종편PP 위주로 지원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

- KBS, MBC, SBS, EBS CJ E&M은 별도 부스를 열고 홍보 및 판매 상담 진행

○ (KBS) KBS2 새 월화드라마 '너도 인간이니'(극본 조정주·연출 차영훈)가 메인 배너 장식, 전세계 방송, 제작사 및 라이선싱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콘퍼런스에서 10분 분량의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 (SBS) 음악쇼 프로그램 포맷을 프랑스와 공동 기획하여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였고, 선거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음
- (EBS) 어린이프로그램 포맷을 개발하여 쇼케이스 발표, 일본 NHK 방송에서 포맷 구매 등 상담 실적 있음
- (CJ E&M) 참가 방송사중 가장 넓은 부스를 열어서 홍보 및 상담 진행, 칸 시리즈 본선작으로 드라마 '마더'가 선정, '비밀의 숲' 전 세계 100대 드라마 선정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드라마 선판매,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포맷 해외 공동제작 협의
- (JTBC) '착하게 살자' 등 예능프로그램 포맷 Pitching 실시, 하이엔드 드라마 판매 및 각종 프로그램 해외 공동제작 협의
- (72초TV) 국내 작품으로 유일하게 드라마 '두 여자' 편이 'digital short from pitch' 부문에 선정, 올해 신설된 digital short from pitch 부문에는 최종 심사를 통해 6개국 6개 작품이 선정되어 각종 투자 상담이 이루어짐
- (드래곤플라이) MIPTV는 2016년부터 가상현실(VR) 산업까지 영역을 대폭 강화 및 확대하여 4차산업의 핵심인 VR산업에 대한 전문 B2B 행사로 거듭나면서 올해 행사에 드래곤플라이가 '스페셜포스 VR: 유니버설 워'의 B2B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 교두보 확장
-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올해 처음 개최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은 MIPTV 2018의 메인 행사로 전세계 130여개 작품 중 한국의 '마더'(tvN)를 비롯한 10개 작품이 공식 경쟁부문에 오름
- 공식 경쟁 부문에 오른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Best Music, Best Screenplay, Special Performance Prize, Best Performance, Best Series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상을 받았으나 '마더'는 수상 못함

- 현지시간으로 9일 열린 '마더'의 공식 스크리닝 행사에는 600석 규모의 뤼미에르 대극장이 만석을 이뤘고, 상영 종료 후 관객들은 엔딩곡이 종료될 때까지 약 3분여간의 기립박수를 보냄. 특히 외국 팬들은 '마더'의 포스터를 구해와 사인을 받아가기도 함
- 공식 스크리닝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원작을 구매하게 된 이유, 뒷이야기의 전개, 허율의 캐스팅 과정, 로케이션으로 본 한국의 아름다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진 것으로 볼 때 수상은 못했지만 향후 한국드라마의 세계 진출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 해외 방송사 부스 주요 특징

- o (중국관) 중국은 가장 많은 면적을 임대하여 가장 많은 회사들이 참가, 중국은 '16년까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에 주력하다가 '17년부터 방송프로그램 판매 시작
- 애니메이션과 동시에 CCTV9을 통해 다큐도 제작하였으나 주로 현물을 지원하는 공동제작에 치중, 해외판매는 부진
- '17년 이후 한국 예능·드라마 포맷 모방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들고 해외 진출 모색 중, 거대시장이라 스케일은 있으나 콘텐츠의 깊이는 떨어진다는 평가
- o (중국, 한국 프로그램을 표절한 프로그램 홍보 열중) '위즈덤 오브 차이나'(Wisdom of China)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콘퍼런스에서 SBS TV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베낀 상하이 동방위성 TV '천뢰지전'을 대표 홍보 프로그램으로 소개
- KBS 2TV '노래싸움-승부'를 베낀 듯한 프로그램도 소개

※ 중국 장쑤위성TV는 KBS 2TV '노래싸움-승부'를 표절한 '더 나은 소리'를 방송한 바 있음

- 중국관에서 홍보 중인 중국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제작한 홍보책자에도 한류 표절 프로그램을 소개한 자료가 많았음

※ 언론보도에 의하면 tvN '윤식당'을 표절한 '중찬팅'(中餐廳·중식당)은 너무 똑같이 베낀 탓에 중국 현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고 함

- o (저작권 콘퍼런스에서도 중국 표절 문제 지적) 국제 포맷인증 및 보호협회(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 FRAPA)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愛奇藝) '우상연습생'이 엠넷 '프로듀스101'을 표절했다는 분석 결과 발표, FRAPA는 '프로듀스101'과 '우상연습생'은 포맷이 88% 유사한 것으로 분석

- o (터키관) 텔레노벨라 스타일 드라마들의 제작 규모가 크고(편당 제작비 10억 원) 만듦새가 좋으며,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

- 터키 방송사들은 한국 원작 드라마를 터키 버전으로 각색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음. 터키 방송사는 KBS의 <가을동화>, <미안하다 사랑한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판권을 구매하여 리메이크하여 재수출하는 사례가 많음

- (터키 드라마의 인기비결) 드라마가 담고 있는 터키의 고유한 이슬람 문화와 더불어, 서구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이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듯

- 터키의 드라마는 편당 100~150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에피소드당 낮은 가격으로 판매 (박리다매) 되며, 방송 편성이 될 경우 장기 편성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 해당 국가와 문화코드가 유사한 드라마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현지 인기 연예인을 이용한 현지어 더빙 등)하여 터키 드라마에 대한 인기를 상승시킨 후 다른 터키 드라마로 인기를 연계하는 마케팅 전략 구사

□ 국내 주요 업체 부스



KBS미디어



MBC



SBS 콘텐츠 허브



EBS



KOCCA 공동관



CJ E&M

□ 해외 주요업체 부스



중국관



터키관



ITV Studio



Endemol Shine Group



BBC Worldwide



MIRAMAX

□ CANNESERIES의 'In Development' 프로그램

- 'In Development' 프로그램은 MIPTV와 CANNESERIES(새로 만들어진 칸 국제 드라마 축제)가 협력하여 스크린에 상관없이 드라마 제작을 인큐베이팅하는 사업
 - 모든 스크린에 적합한 새로운 목소리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여 전 세계의 주요 작가 및 제작자 등 의사결정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 2017년 출품 요청 후 46개국 344건의 프로젝트가 출품되어 올해 3월까지 드라마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이 12개 프로젝트 선정
 - 'In Development' 행사 참가자들은 주요 의사결정자 및 제작 가능성이 있는 파트너와 매치메이킹, 멘토링 서비스, 패널 및 사례 연구 프로그램 이용 가능
- ※ European indie Federation Entertainment 는 선정된 프로젝트 중 하나를 공동 개발, 공동 제작 및 배급 할 것을 제안, 프랑스 La Fabrique des Formats은 이번 행사에 출품된 2개의 프로젝트에 프랑스 제작자의 후원을 받아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 심사위원인 Platform One Media 배급 및 공동 제작 책임자 Erik Pack은 “In Development는 전 세계의 공동 제작 기회를 탐색하고, 제작자 및 공동 제작 담당자를 만나서 시장의 진행 방향을 추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국제 공동 제작 아이디어를 둘러싼 엄청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또한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말함
 - 또한 Pack은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의 원산지는 이제 화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경 건너편의 제작자 및 방송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핵심은 드라마나 기본 아이디어의 원출처에 관계없이 좋은 스토리와 캐릭터가 요구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함

< 불임 - MIPTV 참관 및 행사장 주요 전경 >



<2018 MIPTV 한국 참가 기업 명단>

구 분	업체명	비 고
1	KBS 미디어	방송사
2	MBC	방송사
3	SBS 콘텐츠허브	방송사
4	EBS	방송사
5	CJ E&M	채널
6	JTBC 콘텐츠허브	채널
7	채널에이	채널
8	스카이라이프 TV	채널
9	킹콘텐츠	배급사
10	에이스원미디어	배급사
11	유나이티드미디어	배급사
12	대한미디어월드	배급사
13	에이케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14	영앤콘텐츠	배급사
15	벤엘글로벌	배급사
16	아바엔터테인먼트	제작/배급
17	플레이온캐스트	제작/배급
18	메익스	제작사
19	칠십이초	제작사
20	컴퍼니에이이엔티	제작사
21	플레이리스트	제작사
22	마이콘텐츠	제작사
23	케이시크	제작사

Reed MIDEM 이사(Laurine Garaude) 간담회

- 일 시 : '18. 4. 10.(화), 09:30~10:20
- 장 소 : Reed MIDEM 회의실
- 참 석 자
 -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 등 대표단 전체
 - (Reed MIDEM) 로린 가로드 TV부문 이사 외 1인
- 의 제 : 한국 방송드라마의 한류 지속 방안 등
- 주요 논의 내용
 - (MIPTV) 2005년 방송위(KBC) 주관 주빈국 행사를 진행했음. 이때가 주빈국 행사의 처음이었고, 그 이후 발전하여 주빈국 행사가 커진 계기가 됨. 주빈국이 되면 가을 MIPCOM까지 1년 내내 주빈국의 콘텐츠를 홍보하게 됨
 - TV의 메인행사로 드라마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 개최 되었고 한국 드라마 '마더'(tvN)가 공식 경쟁부문에 오르는 쾌거를 이룸
 - (방통위) 올해 MIPTV에 칸 국제 드라마 시리즈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등 최근 방송콘텐츠 시장의 트렌드가 드라마인 것으로 보임. 한국 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바랍
 - (MIPTV) 2005년 한국이 주빈국 행사를 할때도 꼭대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꼭대본에 의존하면서 인기드라마를 제작하는 작가들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음. 주빈국 행사 이후 1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 드라마는 아직도 인기 있고 힘이 있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음

- (방통위) ‘태양의 후예’ 이후 한국적 특성을 갖으면서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만한 드라마 장르에 대한 조언을 바랍
- (MIPTV) 최근 5년간 한국 드라마 포맷에 대한 인기가 증가 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드라마 포맷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어제 600명 수용의 큰 극장이 다 찼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 포맷 컨퍼런스에 대한 열기가 높았음
- (방통위) 중국이나 한국 프로덕션이 대규모로 드라마에 투자하면서 한국의 지상파방송사는 인력과 제작비 부족을 겪고 있어서 드라마 질 저하 우려가 있음.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이나 미주시장까지 진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바랍
- (MIPTV) 유니버설한 스토리와 캐릭터 개발이 중요하나 그 국가만의 독창성이 스토리와 캐릭터에 스며들어야함
 - 올해 드라마 제작자들의 공동제작 피칭 행사를 진행 중. 한국의 ‘72초TV’가 선정되어 발표를 한바 있음. 이번 피칭 행사에는 360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 중 20편이 선정되어 이번 행사 기간에 현장 발표 후 글로벌 제작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펀딩을 위한 미팅을 시작했음. Reed MIDEM사는 공동제작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제작사는 소니나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임
- (방통위) 드라마 제작산업의 특성상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한 드라마 발전 사례를 소개해주기 바랍
- (MIPTV) 캐나다와 프랑스가 정부지원을 받아 드라마가 발전하고 있고, 일본이 한국을 스타디하여 주빈국 행사를 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본격화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면,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TV인터내셔널’을 지원하여 지하1층에 세일즈 행사 국가관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2017년에 부산 콘텐츠 마켓에서 한국콘텐츠

진흥기관인 RAPA와 국내 제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 한 바도 있음

- (방통위)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될지 조언 바람
- (MIPTV) 공동제작(co-production)이 중요함. 공동제작은 양쪽의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 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Reed MIDEM사도 중국 상하이에서 MIPChina를 개최하여 공동제작을 위한 미팅 기회를 주선하고 있으며, 중국내 제작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음
- (MIPTV) 13년이나 지났으니 한국이 MIPTV 주빈국 행사를 개최해서 그동안 변화된 한국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람

면담 결과 시사점

- 한류 지속을 위해 한국이 MIPTV에 주빈국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콘텐츠 글로벌 진출 방안을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빈국 행사를 통해서 국내 제작사가 해외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것임
- 국내 방송사나 제작사(72초TV와 같은 웹콘텐츠 제작사 포함)가 해외 피칭 행사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번 MIPTV 2018 컨퍼런스 행사에서 한국 드라마 포맷에 대한 해외 제작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동제작은 문화적 할인현상이 있는 드라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좋은 방안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 면담 장면 >



< 기념 사진 >

암스테르담 IDFA 방문

- 일 시 : '18. 4. 11.(수), 11:00~12:00
- 장 소 : IDFA 회의실
 - ※ 주 소 : Frederiksplein 52, 1017 XN Amsterdam, 네덜란드
- 참 석 자
 -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 등 대표단 전체
 - (IDFA) Cees van 't Hullenaar(케이스 판트 헐르날) 이사
Adriek van Nieuwenhuijzen(아드릭 판 뉴엔하우즌) 산업본부장
- 의 제 :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현황 조사, 콘텐츠 교류 협력 방안
다큐멘터리와 뉴미디어의 방향 등

<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현황 >

- 1988년부터 매년 11월 중순이면 개최되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영화제(IDFA)는 3,000편이 넘는 다큐멘터리 중 약 300여 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그 중 100여 편이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으로 규모로나 역사로나 전 세계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행사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인터랙티브 영화, VR 등 다양한 방송, 뉴미디어 및 영화 산업의 주요 쟁점을 한자리에서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관심을 받는 행사로 1993년 창설된 'IDFA피칭포럼'이 있음.
- 피칭포럼에는 매년 500편이 넘는 프로젝트가 지원을 하고 이중에서 약 50편을 선정하여 16개 작품은 전 세계 디시전메이커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피칭을 하고 나머지 작품은 소규모의 라운드테이블, 인터랙티브 미디어 피칭에 소개. 최근에는 '난민'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도부터 대표단(10~15명)을 꾸려 IDFA에 참석하고 있음

□ 주요 논의 내용

- (방통위) 영화제 및 피칭포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EU 또는 네덜란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었는지?
 - (IDFA) 1988년부터 국제 다큐 영화제를 시작했고 네덜란드 문화부에서 행사비용의 25%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음. 4년마다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영화제 계획 전반에 대한 심사는 받고 있으나 정부의 개입은 없음
- (방통위) 유럽의 다양한 영화제가 있는데 현재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요인이나 차별요소가 무엇인지?
 - (IDFA) 다큐멘터리의 예술적 가치를 중요시 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창작자의 글로벌 소통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임.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피칭포럼, 투자 상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강점
- (방통위) 한국의 피칭세션에 대한 커미셔닝 에디터(commissioning editor) 및 그 외 영화제 관계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 (IDFA)한국에서 매년 많은 창작자들이 참가해왔고 전반적으로 콘텐츠의 질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다만 한국 콘텐츠는 자막이나 더빙이 필요해서 영미권 국가들이 기피하고 있지만 콘텐츠의 품질에 중점을 둔다면 극복 가능 할 것. 예를 들면 노부부의 사랑을 다룬 다큐나 탈북자의 남한 정착 과정을 그린 한국 다큐는 인상적이었음. 세계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하므로 한국인이 직접 만든 다큐를 통해서 한국이 어떠한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 (IDFA) 최근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나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포맷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의 다큐멘터리를 'Doc lab' 부문을 통해 10년째 소개하고 있음

면담 결과 시사점

- IDFA에서 2010년 박봉남 감독의 '아이언 크로우즈(Iron Crows)'가 중편부분 대상을, 2011년에 이승준 감독의 '달팽이의 별(Planet of Snail)'이 아시아 최초로 장편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다큐멘터리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IDFA가 매우 큰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2015년 지혜원 감독의 'Singing with Angry Bird'가 베스트 피칭상을 받고, 그 다음해에 IDFA에서 상영됨
- 특히 2013년부터 "Korea Pitching Day"라는 피칭세션을 진행하여 한국의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매년 5~6편 정도 소개되고 있으나 올해는 피칭세션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BCPF의 지원 지속 필요
- 방송과 영화와 인터넷, 극장과 갤러리 등 미디어 플랫폼간의 구분이 무의미한 매체 환경에 따라 IDFA 영화제의 피칭에 선정된 프로젝트 대부분이 TV용(52분)과 극장용(90분) 버전을 동시에 제작할 것임을 공표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도 유통될 수 있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정부의 다큐 진흥 지원 사업 예산과 방송사의 다큐 제작비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은 양질의 우수한 다큐프로그램을 시청자가 향유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 활용 등 다큐 제작 지원을 위한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방송사의 IDFA 참여 필요. 침체된 한국 다큐 진흥을 위해 IDFA 피칭 행사에 참여하여 고품질 해외 다큐를 발굴 하여 국내에 방송 할 수 있고, 국내의 하이엔드 다큐뿐만 아니라 방송사 자체 PD나 독립PD의 기획안 피칭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일본 NHK 사례)

< 불임 - 면담 사진자료 >



< 면담 장면 >



< 기념 사진 >

EU 집행위 사법총국 방문

- 일 시 : '18. 4. 11.(수), 17:00~18:00
- 장 소 : EU 사법총국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 등 대표단 전체
 - (EU) Francisco Fonseca Morillo 부총국장 등
 - (주 벨기에 EU 대한민국 대사관) 임형태 참사관, 박인효 서기관
- 의 제
 - 한-EU 적정성 평가 추진 의지 확인 및 협력 강화
 - GDPR 적용 시행 등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환경 대응 전략
- 세부 면담내용
 - (방통위) '18년 10월 아셈 정상회의에서 한-EU 적정성 평가 승인에 대한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 (EU) 적정성 평가는 엄격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당길 수 있는 빠른 길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양측의 차이점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수시로 의견 교환, 이후 6~7월 대안 수립 및 8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정치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방통위) 한국 정부는 방통위를 포함하여 현 시스템이 가진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음. 일례로 한국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 및 페이스북의 대응 등을 공유하려고 노력하였음

- 우리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6~7월에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함
- o (EU) 한국과 EU는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과 GDPR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에 대해 비교·분석 중에 있는데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함
 - ① 유럽의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이전 된 후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가 망법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지 등 망법의 보호 범위에 대해 실제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
 - ②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라는 개념이 유럽 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필요
 - ③ 개인정보가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전된 후 이 정보가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CBPR을 통해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적정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재고를 바람
- o (방통위)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매우 엄격한 보호기준을 적용 중임을 말씀드리며 3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림
 - ① 정보통신망법 적용 관련
 -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시 한국에서 활동하는 EU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회사에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② EU 이용자 관련
 - 이용자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시민이 한국 기업의 이용자가 될 경우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함
 - ③ 개인정보의 제3국 전달 관련
 - CBPR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EU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 EU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는 EU의 동의 없이는 제3국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임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 면담 장면 >



< 기념 사진 >

EU 집행위원회(EC) 방문

□ 일 시 : '18. 4. 12.(목), 14:30~15:30

□ 장 소 : EU 집행위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 등 대표단 전체
- (EU)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사법총국 집행위원 등 3인
- (주 벨기에 EU 대한민국 대사관) 정병화 공사, 박인효 서기관

□ 의 제

- 한-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 추진현황 및 협력강화 방안 논의
- GDPR 성공적 시행을 위한 EU 회원국 준비현황 등 공유

※ 요로바 집행위원에게 PIS Fair 2018(5.31-6.1) 초청 서한(이효성 위원장 서명) 전달

□ 세부 면담내용

- (방통위) 5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PIS Fair 행사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의 서한을 전달 드리며, 방한하기를 희망함
 - 국무총리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의 면담을 계획 중이며 방한 시 면담 일정 등 세부사항은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음
- (EU)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파악 중이며 방한 여부는 다음 주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EU)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양측의 체계에 대해 비교 분석 중이며, 적정성 평가 승인 과정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우리 측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 한국과 EU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조율이 된다면 서로 다른 체계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o (방통위) 큰 틀에서 한국은 GDPR 부분적정성 평가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조율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많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함
- o (EU) 현재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망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EU시민들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국가기관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에 어느 정도로 접근 가능한지?
 -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경우, 어떠한 보증이 가능한지? EU에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완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강력한 보증을 요구함
 - 한국에서는 AI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 o (방통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답변 드림
 - 한국 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GDPR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몇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실무협상에서 창의적인 대안들을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EU와 EU 이용자에 대한 망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EU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도 상호호혜적일 것임**

- 한국은 국가 기관이더라도 수사, 테러 방지 등 한정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함
- EU 시민들의 정보가 제3국으로 자동으로 이전 되지는 않을 것이며 우려되는 사항들이 해결이 될 때 이전될 것임
 - ※ (사례) 한국 벤처 기업들이 아마존 등 국외에 있는 기업 서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이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전문적인 이슈이므로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o (방통위) 5월 25일부로 GDPR이 발효되므로 적정성 승인을 최대한 앞당겼으면 함
- o (EU) 현재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늦어도 연말까지로 기한을 잡고 있으며 지연의사는 없음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 면담 장면 >



< 기념 사진 >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EU 집행위원 초청 서한>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47,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13809, Korea

URL : <http://www.kcc.go.kr>

Ms. Věra Jorouvá
Commissioner, European Commission
Justice, Consumers and Gender Equality

April 4, 2018

Your Excellency,

It is my great pleasure to invite you to th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PIS Fair 2018) being held in Seoul, Korea from May 31 to June 1, 2018.

This year marks the eighth year of the PIS Fair, which is the largest personal data protection forum in Korea. Approximately 5,000 personal data experts from major domestic and overseas companies come together to discuss personal data protection. In particular, this year the fair will include a special session on the GDPR to help business in the EU market strengthen their protection measures.

I believe with your attendance, Korea and the EU will be able to confirm Korea's progress for an adequacy assessment and continue with the next steps towards an adequacy finding. President Moon and the Korean government highly prioritiz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EU, and I believe your visit would present an opportunity to hold high-level discussions confirming both parties' mutual dedication to this relationship. Several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well as various companies and civic groups also hope to have fruitful discussions with you.

I believe your visit would not only strengthen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but also greatly inform the creation of strategic vision in response to 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Sincerely Yours,

Lee Hyo-seong
Chairma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Ⅲ. 시사점

MIPTV는 왜 TV 드라마에 주목하는가?

- Reed Midem은 글로벌 TV비즈니스에서 주목할 분야로 2개의 'BigD'(D-Digital, D-Drama)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드라마를 부각시키는 마케팅 시작
 - 경제상황 호전에 따른 미국 헐리우드의 콘텐츠 제작 투자 여건 개선과 빅 킬러콘텐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가 고품질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붐을 형성했다고 판단
- MIPDrama Screening은 high-end drama에 대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최고의 스크립트 콘텐츠를 MIPTV에서 초청 형식으로 시사
 - 제출된 TV 드라마 중에서 10개의 선정된 프로그램을 전 세계 구매 담당자들 초청하여 시사회를 개최하고 판매 및 투자 유치 지원
 - Reed Midem이 드라마에 집중하는 것은 넷플릭스 등 프리미엄 PayTV사업자들이 콘텐츠를 저가에 공급하는 SVOD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자신들의 중심 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고품질 드라마에 대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끼친 듯
 - 그 결과 대자본이 투자된 드라마가 제작되고, 사업자 간 공동제작도 활성화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을 주목 한 듯
- 새로운 유통 플랫폼의 출현과 소비자의 콘텐츠 기호 변화에 의해 드라마의 황금기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드라마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킬러 콘텐츠로써 유효성을 지님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동영상 즐기려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킬러 콘텐츠 확보를 위한 사업자들 간의 경쟁 가속화
 - (미국) FX Networks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는 409개 이었으며, 2009년 이후 매년 9% 이상 성장
 - (중국) 드라마 제작시장의 경우 2013년 17억 달러, 209편의 신규 드라마가 방영되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8,000~9,000회의 신작 드라마가 방영. 최근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이 자체 드라마 제작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 아이치이가 제작한 <The Lost Tomb>은 회당 500만 위안(약 8.5억 원)의 제작비를 기록
 - (유럽) 유럽의 경우, OTT 플랫폼들은 콘텐츠의 90%를 드라마로 제공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 투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유럽의 경우 TV 드라마 산업은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었고 고품질 드라마 국제 공동이 활성화 될 것
- o Netflix, Amazon, Google, Apple, Hulu 등 비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사업자 및 글로벌 유통 플랫폼의 출현은 고품질 스크립트 콘텐츠 (드라마)에 대한 수요 확대를 가져옴
- 글로벌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 및 on-demand 시청의 증가는 고품질 일 뿐만 아니라 강렬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품질 드라마에 대한 산업계의 욕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 o 콘텐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방송산업의 새 먹거리에 대한 빅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MipDrama 스크리닝은 드라마 시장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선투자를 통해서 콘텐츠 마켓의 선도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임

출장결과에 따른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방안

□ 드라마 포맷 제작과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필요

- 방송콘텐츠 포맷은 각국의 편성규제를 피하고 완성품 판매가 어려운 국가에 방송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대안
 - 한국은 예능콘텐츠 포맷에서 강점을 보여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 중이고, 문화적 할인현상으로 드라마 완성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지역(중동과 유럽)에 진출하는 방안으로 드라마 포맷 수출 가능
 - (드라마 국제 공동제작 지원 필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국제공동제작 협정 체결과 같이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큰 국가와 드라마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통해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 지원 필요
 - 국가별로 드라마 제작에 따른 제작시스템(제작비, 스태프 및 장비의 운용 등을 포함), 규제제도 등의 차이에 따라 국제공동제작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드라마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 지원 필요
 - 판매 해당국과의 공동제작도 필수적이지만, 한국의 방송콘텐츠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타국의 방송사업자와 공동제작을 통한 우회적 판매 전략도 유효할 듯
- ※ SBS가 중국에 <런닝맨>, <정글의 법칙>의 포맷을 판매하면서 중국 방송사와 <런닝맨>을 공동제작하여 큰 수익을 얻음
 - ※ SBS는 2015년에 중국과 공동제작으로 인한 수입이 300억 원 수준으로 중국에 전송권을 판매한 금액(700억 원)의 40%를 초과
 - ※ MBC는 <아빠 어디가>, <복면가왕> 등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중국과 동남아에 판매하였고, KBS는 <닥터스> 드라마 포맷을 미국에 판매하여 대성공을 거둠
 - ※ CJ E&M은 <꽃보다 할배>의 포맷을 미국에 판매하였고, <더 지니어스>의 포맷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에 판매함

- (포맷 개발 인력 양성 필요) 드라마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획 및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세계 드라마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스토리의 고갈로 인해 다른 국가 또는 권역에서 스크립트 포맷을 구매하여 자국판으로 리메이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에 수출 가능한 스크립트 포맷 개발과 작가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 (MIPDrama Screenings 적극적 참여 및 마케팅 지원 필요) Reed Midem의 MIPDrama Screenings는 한국의 고품질 드라마를 전 세계 바이어 대상으로 폭넓게 마케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서 국내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행사 참여를 통한 마케팅 및 투자 유치 필요

□ 중국의 한국 방송프로그램 표절에 대한 대응 필요

- MIPTV 2018에서도 중국의 한류 예능 무단 표절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을 확인
 - 중국 국내 사정 혹은 관습으로 볼 때 중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데다, 대개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참고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 시장이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저작권 침해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문제제기와 외교적 해결 노력 필요

EU GDPR 적정성 평가 추진 관련

□ EU 적정성 평가(Adequacy Assessment) 제도

- EU는 '95년부터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 (Directive 95/46/EC)」을 제정하여 시행('98.10.24) 중

EU 개인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Directive)의 내용

- ▶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준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운영
- ▶ 적정한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역외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 제한
- ☞ 적정한 수준이란 ①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②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보상 제도, ③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운영 등을 의미

※ 모든 EU회원국(28개)은 본 지침을 법제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EU 적정성 평가'는 역외 국가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요구하는 적정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EU 적정성 평가'를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EU 기업들과 같이 EU시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인정국가) 스위스(00.7월), 캐나다(01.12월, 부분 적정성), 아르헨티나(03.6월), 건지 섬(03.11월), 맨 섬('04.4월), 저지 섬(08.3월), 페로 제도(10.3월), 안도라(10.10월), 이스라엘(11.1월), 우루과이(12.8월), 뉴질랜드(12.12월) 11개국, 미국은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Privacy Shield 협정 체결(16.7월, 부분 적정성)

- EU는 적정성 평가 시 해당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실질적인 법·제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법제도의 실효성, 피해구제 및 감독기관의 실체 등과 더불어 OECD 8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살핌

- 이번 출장에서 EU집행위와 면담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적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평가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법규 간 면밀한 정합성 검토 및 비교분석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EU의 GDPR 제정 배경

- PRISM 사건*(’13)과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유럽시장 잠식으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 부상

* 미국 국가안보국의 빅데이터 감시프로그램으로 접속권한을 요청하여 미국 내 위치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2013년 전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며,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단 활용 사례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사건

- EU 국가들은 PRISM 사건으로 자국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 재인식
- EU 시장에서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국민 데이터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 Google의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은 91%(’18),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80% 이상으로 추산(EC, ’16)

- 통일된 디지털 규범과 발전전략으로 디지털 경제활동 장벽을 제거하여 유럽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실현

-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 및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통합의 필요성 증대

※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3대 중점과제 : ① 온라인 시장접근 개선, ②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 조성, ③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GDPR은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비즈니스 영역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

- 데이터를 매개로 이익을 얻는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재검토 등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예상

□ GDPR의 시사점

① 개인과 국가의 데이터 주권 보장과 강화 확대

○ (개인) GDPR에서는 정보주체인 개인의 주체적 의사결정권과 통제권 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여 개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 (국가) GDPR에는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원이라는 관점과 데이터 주권의 수호가 곧 자국민 보호라는 인식 반영

- EU 역내 법률체계를 통합하고, 활용가능성을 높여 자국민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성장 기반 마련

- 허가 받지 않은 자국민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

※ GDPR에서는 유럽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갖춘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 한해 데이터 이전을 허용

②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촉진

○ GDPR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 즉 GDPR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외 데이터 활용 등의 다른 기본권 또한 존중할 것을 명시

- 이러한 기조는 자국과 자국민의 데이터 주권은 강화하면서, 자국 디지털 산업은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

※ 애플은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16)에 따라 '18년 4월부터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iCloud'의 중국내 데이터를 중국 국영기업을 통해 관리하기로 결정

○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은 보장하면서 개인과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이 포함되는 등 데이터 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 최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알 권리’와 함께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열람하고 수정·삭제 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정보기본권으로 명시

- 유럽 주요국들은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를 자원으로 활용(사용, 매매 및 공유)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시도

※ 핀란드의 ‘MyData’, 프랑스의 ‘MesInfos’등 유럽 국가들은 GDPR 체제안에서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

③ EU 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여

o GDPR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의 원천인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데이터 패권 경쟁의 우위 선점을 위한 대응전략

o GDPR이라는 단일 규정 준수로 EU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해지고 관련 비용이 절감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GDPR 이전에는 EU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28개국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했으나, GDPR 시행으로 하나의 규정만 준수하면서 얻는 경제적 효과는 약 23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적정성 평가 추진 필요성 : EU 진출 국내기업 애로사항 해결

o EU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의거,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의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사전에 역외이전 계약 체결* 후, EU 회원국 감독기구(DPA)의 심사를 받아야 개인정보 국내 전송·처리 가능

* ‘현지기업↔국내기업’, ‘지사↔본사’ 간 고객정보, 지사 직원정보 등 역외이전 계약 체결

o 개인정보 역외이전 계약체결 과정에서 국가별(28개)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준수를 위해 과도한 비용지출과 사업지연 발생

- 계약체결과 규제당국 심사에 상당한 시간 및 법률자문 비용 소요

※ 국외이전 계약 등으로 개별국가(28개)의 법률 적용 검토 비용 (L社 약 38억)

-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경우 EU 규제에 대한 부담감과 소요비용 등으로 EU 진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 상존
- 또한, 현재 EU는 기존 지침(95 EU Directive)을 대신하여 EU 전 지역에 적용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제정하여 적용(18.5월)을 앞두고 있으며,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이 GDPR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시 전세계 연매출의 4%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 가능

□ EU Directive(95/46/EC)의 적정성 평가 기준과 절차

- (평가 기준) 현행 지침에서 적정성 인정은 EU지침 제29조 작업반*의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EU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조 및 제26조의 적용 (WP12 5025/98)」(98.7.24)을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짐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 따라 EU 각 회원국 감독기구(DPA)와 EU 집행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으로, 적정성 평가 또는 EU 법에 대한 의견 발표

○ 평가 절차

- (EU 집행위 평가 개시) 제3국이 EU 집행위에 적정성 평가 개시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개시는 EU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짐

※ '17.1.10 EU 집행위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대한 연락문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적정성 평가 의사 표현

- (EU 집행위 적정성 여부 판단) EU 집행위는 적정성 평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solid ground and base) 확인 뒤 절차 진행

※ EU이사회·유럽의회는 EU지침(95/46/EC) 제25조제6항을 근거로, 제3국이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에 의해 적정한 보호 수준 확보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EU집행위에 부여

< EU 적정성 평가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U 집행위의 초기결정	제29조 작업반 (GDPR 시행 이후 유럽정보보호이사회로 강화) 의견 제시	EU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승인	EU 집행위원 전원회의 에서 최종 결정
※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집행권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적정성 결정을 유지, 수정 또는 철회하도록 EU 집행위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 단, EU 집행위는 2~3단계 진행절차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에서 적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인 후 초기결정(initial decision) 수행			

※ 29조 작업반 : 회원국 감독기구 대표, EDPS 대표, EU집행위 담당과장으로 구성

※ 31조 위원회 : 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 제3국에서 적정성 심사 신청 또는 EU집행위 주도로 심사 개시
- EU 집행위가 신청내용을 정리 (전체 적정성/부분 적정성)
 - ※ 적정성 결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전체/부분 중 해당국 여건에 맞게 결정)
- 제29조 작업반이 정밀심사를 진행하나, 어디까지나 작업반의 의견
- 제29조 작업반이 인정해도 제31조 위원회에서 재차 심의·승인
- 이 모든 것을 거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경험적으로 2~4년 소요

※ 적정성 결정은 국제적인 합의·동의를 아니라 EU집행위의 일방적 법적행위이며 EU 집행위 위원장의 결정으로, EU 내 최고수준의 의사결정

□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의미와 기대효과

- 현재 미국, EU등 세계 각국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개인정보 기반 새로운 신규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바,
 - ※ 국가 간 디지털 거래 규모는 매년 15% 이상 증가 추세 (WTO, '15년)
 - ※ 데이터 유통성장률은 '05년 대비 45배로 무역이나 금융을 능가(맥킨지보고서, '16.3월)

- IT강국인 미국은 신규산업 육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강조하고, 반면에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o 즉,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EU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기저에는 EU 시민 및 기업의 보호를 위한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o 기술력과 더불어 타이밍 경쟁이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EU*와 같은 큰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 * EU는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 ('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1,053억 달러)
- o 정부차원에서 'EU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면, EU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지 규제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기업과 공동으로 범정부적인 노력 필요

- o 적정성 평가 주요 쟁점 협의를 위한 실무 화상회의를 진행(매월)하고, PIS FAIR('18.5.30~6.1) 등 국내 행사 계기로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여, 적정성 성과 달성을 위한 한·EU 고위급 회담 추진
- 산자부, 법무부 등 범부처 협력과 무역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한 로비 등 적정성 평가 가속화를 위한 민·관 합동 노력 필요
- ※ 일본은 '17.12.14 베라 요로바 EU 사법총국 집행위원이 도쿄를 방문하여 고위급 회담을 갖고, 경단련 등 일본 경제단체와 적정성 평가 관련 대화를 통해 협력 강화
- o 민간부분도 GDPR의 핵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앱·제품·서비스의 기본 설정을 '개인정보 보호 적용 설계'로 하고,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마련해야 함

IV. 첨부자료

출장 동정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제공일 2018. 4. 6.(금)
	2018년 4월 6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김영주 팀장(☎2110-1331)
박규태 주무관(☎2110-1342)

방통위,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및 EU와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나서

- 국내 다큐멘터리 등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 - - EU 집행위와 적정성 평가 추진 협의 -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4월 8일(일) 출국한다. 우선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MIPTV*를 참관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IDFA :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사무국을 방문하여 국내 다큐멘터리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 MIPTV(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 :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전문 마켓

허 부위원장은 MIPTV 행사 기간 중 국내외 참가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리드 미템(Reed MIDEM)*의 로린 가로드(Laurine Garaude) 이사를 만나 업계 현황 및 방송 콘텐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 Reed MIDEM : 전시 이벤트를 주관하는 Reed Exhibition의 자회사로 콘텐츠 관련 전시 이벤트를 주관함

이후 허 부위원장은 EU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4월 13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8. 4. 13.(금)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김영주 팀 장(☎2110-1331)

박규태 주무관(☎2110-1342)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협력팀 이정수 사무관(☎2110-1538)

방통위, EU 사법총국 집행위원 면담 통해 EU 집행위와 개인정보 협력 강화

- 내달 GDPR 시행에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 전달,
조속한 적정성 평가 추진 의지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14시 30분) 유럽연합(EU) 사법총국(DG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 담당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18년 5월 시행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GDPR*)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허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 포럼인 PIS Fair('18.5.31~6.1, 코엑스)에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 GDPR : '18.5.25일 시행되는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를 특징으로 함

** EU 적정성 평가 :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정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로부터 역외 이전 가능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EU는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고위급 접촉을 병행하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끝.

<관련 주요 언론 보도>

e하루의 시각

아이뉴스24 뉴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에 韓 방송콘텐츠 알린다

국내 다큐멘터리 등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

2018년 04월 06일 오후 18:19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럽연합(EU)을 방문,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도모한다.

방통위 부위원장 이효성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8일 출국한다고 6일 발표했다.



◇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허 부위원장은 우선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MIPTV를 참관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IDFA) 사무국을 방문해 국내 다큐멘터리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MIPTV(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전문 마켓이다.

허 부위원장은 MIPTV 행사 기간 중 국내외 참가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리드 미엠(Reed MIDEM)의 로린 가로드 이사를 만나 업계 현황 및 방송 콘텐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리드 미엠은 전시 이벤트를 주관하는 리드 전시(Reed Exhibition) 자회사로 콘텐츠 관련 전시 이벤트를 주관한다.

이후 허 부위원장은 EU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협의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 집행위에 적정성 평가 추진 요청

허욱 부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면담
적정성 평가 논의 재확인...실무협상 진행

등록 : 2018-04-13 11:05:36



【서울=뉴시스】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사법총국(DG Justice) 담당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났다고 13일 밝혔다. 2018.04.13 (사진 = 방통위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올해 5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EU 적정성 평가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로부터 역외 이전이 가능하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EU 사법총국(DG Justice) 담당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났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허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 포럼인 'PIS Fair'에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EU는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고위급 접촉을 병행하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7~18일까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편, GDPR은 올해 5월25일 시행되는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2papers@newsis.com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 집행위와 개인정보 협력" 논의

[JTBC] 입력 2018-04-13 14:04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시각 12일 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만나 오는 5월 시행 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GDPR은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가 특징이다.

EU 적정성 평가는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이를 통과한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로부터 역외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EU는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협약과 고위급 접촉을 진행해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허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 포럼인 PIS에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8일까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정훈 / 정치2부 기자